

## "Nomade Life"

Artist Lee Hyang-nam, whose works are nomad-themed, is an artist who realizes incidents experienced in the journey of life through formative language. The artist expresses the processes(incidents) that lead the journey out to the world escaping the habituated and generalized life through the representation image of shoes. This representation image is the method to reestablish the location of life continuously by reasoning nomad, the method of independent life that she pursues.

Lee Hang-nam's true artistic nature crossing the inside and the outside  
The artist's childhood dream was an outback explorer and pilot. From those dreams, it can be inferred what she pursues and how she tries to live. Questions and desires for broader world. These might be her fundamental languages in the process of exploring by projecting herself in the actual art works. Why does she want to escape from her world?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present nomad for the theory of escape. They explained nomad in an important context as a condition of an actual strategy instead of being fixed theoretically. Nomad can't be accomplished just by looking at the world escaping from the reality, but genuine nomad starts from the act of changing life based on practice. The artist might think. Nomad is a war machine that fights against the stable life in the dictating and structural society. To her, it is important how to realize and operate the transcendental outside, or various undecidable worlds, to art works in the current life. The methods that Lee Hyang-nam lives are incidents. She is making horizontal escape lines by trying to contact new encounters leaving the conventional life. This act of practice, which is making holes in the conventional life due to unfamiliarity of difference beyond self-identification of principal agent, can be Lee Hyang-nam's own artistic nature.

Lee Bong-wook, art critic(PhD of arts)

“Nomade Life”

부제 : 여정, 예술 실천으로 사유하기,,,,,,

노마드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이향남 작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조형언어로 구현하는 예술가이다. 작가는 고착화·보편화 되어가는 삶에서 탈주하여 세계 바깥으로 여정을 이끄는 과정(사건)들을 신발이라는 표상(representation)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상은 자신이 추구하는 주체적 삶의 방식인 노마드를 사유하여 지속적으로 삶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방식이다.

이향남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예술적 실체

작가에 어릴 적 꿈은 오지 탐험가와 비행기 조종사였다. 그의 꿈을 살펴보면 그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잘 알 수 있다.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의문과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예술작품으로 자신을 투영하여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질적 언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왜 자신의 세계에서 탈주하려는 것일까? 들뢰즈(G. Deleuze)와 가타리(F. Guattari)는 탈주에 대한 이론으로 노마드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노마드를 이론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닌, 실천 전략의 조건으로써 중요한 맥락에서 설명하였다. 현실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노마드가 될 수 없으며, 진정한 노마드는 실천을 바탕으로 삶을 바꾸는 행위로부터 시작한다. 작가는 생각할 것이다. 노마드는 지배적, 구조적 사회 내에서 안정된 삶과 싸우는 전쟁 기계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구조들 속에 내재된 것을 카오스적인 것으로 뒤흔들 수 있는 사유의 공간에서 문화의 혼성적인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즉 안과 밖을 넘나드는 이향남의 여정 속에서 발견되는 문화들은 새로운 작품의 가능성이 생성되는 공간이기도 하며, 작가의 사유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게는 노마드가 작동하는 초월적 밖, 즉 결정 불가능한 다양한 세계를 현재적 삶 속(안)에서 작품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작동시킬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이향남이 살아가는 방식은 사건이다. 그는 보편적 삶을 떠나 새로운 만남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횡적이며 수평적인 탈주선들을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실천 행위는 곧 주체의 자기 동일화를 넘어 다름이 주는 낯섦으로 인해 보편적 삶의 구멍을 내는 것으로 새로운 주체자로의 변신을 시도하는 이향남만의 예술적 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나드의 신발-표상이미지

이향남 작가는 삶을 정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형식과 환경을 마주하며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유를 전이(translation)시켜가는 과정이다. 즉 외부적인 구조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탈주하는 행위,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그는 여정을 택하고 있다. 경계를 허물고 스스로 세계 밖 여정을 통해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실천들은 이항남 작품의 표상적 이미지-신발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물리적 시-공간을 넘어 삶의 경계를 허무는 태도를 통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험이나 사건, 생각들을 관람객들이 체화할 수 있는 보편적 작품들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환원할 수 없는 조형언어로 새롭게 재현(representation)하는 것은 작가만이 가지는 개념적 특이성(singularité)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실체-존재 방식이 모나드(Monad)인 것처럼, 작가의 모나드는 작품의 특이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항남의 예술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심상 이미지-신발은 이항남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나드이다. 이항남은 다양한 모나드의 여정의 파편들로 신발을 통해 작가는 경계와 자아를 끊임없이 넘나드는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럼 신발은 어떻게 관람자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창이 없는 모나드는 타자와의 직접적 소통이 힘들다. 그래서 모나드는 거울의 형태를 가지고 서로 비추며 소통하듯, 반듯이 매개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모나드이다. 작품에서 보듯이 신발 형태의 유닛들을 콜라주 한 것은 작가가 여정에서 체험하는 것들과 관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브제(objet)는 주체이면서, 세계를 열어주는 매개인 것이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현대인들의 소통방식과 닮아있다. 현대인들이 미디어의 매개를 통해 소통하듯, 이항남은 여정에서 돌아와 자신의 삶으로부터 현대인과 연결하는 매개를 신발로 설정하고 있다. 이 파편화된 신발은 회화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관람자들과 소통하는 모나드로서 향연을 펼치고 있다.

### 여정의 실천을 통한 주체-되기

이항남의 Nomade Life 는 결국, 자신의 고착화되는 삶에서 벗어나 여정을 통한 경험과 사건들을 독자적인 조형언어인 특이성(singularité)있는 예술적 표현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조형언어인 특이성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신발이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전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항남 만의 필연적 회화 요소로 채워지고 있다. 그의 일상과 여정에서의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로 인한 '사이(in-between)'에서 새로운 주체가 발생한다. 이런 틈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주체-되기'는 작가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의 보편적 삶과 동일화된 정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주체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정'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생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존재자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가능성이 생기는 실천적 행위이다. 즉 작가는 노마드의 주요 개념을 통해 순수생성과 탈소유를 삶의 방식으로 지속하고자 하기에, 끊임없는 탈주와 탈영토화를 시도하면서 주체 되기로서 탈주의 실재를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이향남 만의 주체-되기는 수많은 여정을 통해 서로 다른 정체성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의 존재로부터 다른 하나의 존재로 변화될 가능성을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품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새로운 형태를 통해 양자를 연결하면서 주체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양자 간의 연결은 사이-틈을 발생시키며, 이 새로운 공간에서 작가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해나가며 삶의 노마드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작품들은 이향남 작가가 가진 여정에 대한 사유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여정은 지금도 진행형이며, 그는 스스로 삶의 과정에서 탈주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오늘도 작품에 임하고 있다.

이 봉욱 미술평론(예술학박사)

## 영원한 사명

### ‘나’를 정복하기

작가 이향남은 극한 상황의 여행에서 체험한 급진적 경험들을 증거하는 모든 조형적 창작물들을 구현하는 작가일 뿐 만 아니라 동시에 무한한 우주와 연결되기 위한 영혼의 치유에 대한 실존적 명제에 관한 작업들을 하는 예술가이다.

그녀의 각 작품들은 세가지 단계를 선취하며, 각 그림들은 관람자인 우리에게 삼중의 여행을 경험시킨다. 첫 번째 여행은 가장 많이 그림의 모티브가 되는 광대한 풍경에 투영되는 우리 몸의 육체적 여행이다. 두 번째 여행은 신발 한 켤레 혹은 머플러의 특이한 존재에 어쩔 수 없이 매료되는 우리들의 눈이다. 실재로, 특히 신발들은 캔버스라는 공간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정밀하게 그려진 데생과 채색들로 그려진, 그 신발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머나 먼 곳, 영원한 세계에 다가갈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여행은 하늘과 땅 사이, 신발과 풍경 사이, 그리고 지구상의 생존의 어려움과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경로를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 사이를 여행하는 영혼의 여행이다.

이향남은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는 대단한 여행가이지만, 결코 관광객은 아니다. 그와는 정 반대로, 그녀의 작품들이 입증하는 것처럼 작가의 모든 여행들은 문화지역이나 휴식, 여가, 해변이나 스키장이 아닌 사막이나 극지, 매우 높은 산과 같은 건조하고 위험한 오지로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향남 작가에게 여행이라는 것은, 여가의 시간이 아니라, 격한상황과 위험의 현실에서 자신의 몸과 정신이 견디어내게 하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통로이다. 여기서 여행한다는 것은, '나'를 탐구하고 정복하러 떠난다는 것이다.

## '나', 그리고 정체성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다 해도, 이향남과 같은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 정체성에 자체에 대한 의심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체가 본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아니라는걸 깨닫고 있다. 이름을 갖고, 사회 안에 자리하며, 타인들과의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구축된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주 "예술가"라고 불리는 다른 이들에게는 이름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진정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름과 사회적 기능, 이러한 나에 대한 수치들은 진정한 "나", 그리고 깊고 진실된 정체성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깊은 정체성의 탐구, 나의 내부 자체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나의 해체, 깊고 우주적인 정체성의 공간은 유일한 현실이며 이향남작품의 진정한 주제이다

따라서 작품의 구조라 할 수 있는 설정은 : 풍경, 신발 혹은 또 다른 머물러처럼 캔버스에 눈에 띄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자유와 부유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요소들이었다 :

작품 하나 하나에서 볼수 있는 본질적인 것 : 완전하지만 마법적이고, 실제로 경험했지만 도달하자마자 우리 앞에서 살아져 가는 것만 같은 순간과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은 가능성과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합치 되는 그 순간이 작품 하나 하나에 재현된다.

## 여행

이 작품들을 감상하며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단순한 것들이 아니다. 사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이항남작가에게 주된 활동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행이라는 다른 활동을 증폭, 연장시키며 더욱 그것에 사력을 다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특히 대도시의 삶에 대한 큰 좌절에 의해 여행을 떠나고 오지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진정한 '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나타나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에 부딪치면서 물질과, 상품, 단순한 구입들로 채워지는 욕망들의 세계가 우리에게 준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고 잘못된 어리석은 것들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다.

이 모든 불필요한 행동들과 활동으로 인해 우리는 절대로 진실된 '나'와 가까워 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매일 매일 더욱 '나'와 멀어지게 한다.

오로지 거칠고 텅빈 풍경의 거대함을 향한 움직임만이, 고통과, 추위 속에 또는 지나친 더위만을 벗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번거롭고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것들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극지의 얼음, 안데스 산맥의 높은 벽, 불타는 사막의 모래, 킬리만자로의 아득하고 눈덮인 거룩한 덩어리 또는 사나운 세렝게티의 거대함은, 오로지 진실된 '나'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 세계에서 싸인 불필요하고 의미가 잘못된 계층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행의 힘든 상황들을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로, 여행을 하는 자는, 완벽히 혼자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 창문이나, 집의 출입문이나, 도시를 돌아다니는 끈질긴 군중 뒤에도 숨을 수가 없다. 여행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외로움과 위험을 견딜 능력이 있든 없든, 가장 원시적이며 원초적인 세계, 인간의 생존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태초의 지구에서도 자신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앞에서

이항남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갤러리나 자신의 아파트, 제한된 경험에서 나타나는 고요속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실된 여행을 한 이와 같은 상황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모두를 위하여, 그러나 특별히 우리들 각자 안에, 진실된 "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작품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민감하게 자유와 자율의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걸까? 그것을 알기 위해 작품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 그림들은

대부분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풍경들을 보여준다.. 인간이 존재할 수 없었던 세상의 이미지. 인간 이전의 세상이다. 바라보고 쳐다보기 위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 아직은 개인이 존재하지 않던 그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적인 실존적 상황과 마주쳐야 “나”는 결국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은 또한 그 곳에서 이 풍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지나간 유일한 흔적, 발자국은, 캔버스의 계획된 공간에 놓아져 있는 신발들이나, 비행하는 카펫과 같이 이르지 못할 공간 위의 세상을 부유하는 스카프이다.

이향남 작가의 작품은 인간의 시선을 취하지 않은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경험이 단숨에 우리를 세상과 우리 자신들 앞에서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별거벗은 자들로 만들어 우리들의 불필요하고 어리석음의 계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신발들은 자취, 그리고 확인으로 이해 해야한다. 그 신발들은 작가를 나타낼 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의미로 재탄생 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오브제를 통해 작품의 중심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거나 상징적인 신체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이향남 작가는 진실된 “나”를 만나기 위해, 직접적인 자신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thing”이 아니며 개인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원칙이 이름없는 거대한 외로움과 무한한 우주를 대면해 자신 스스로를 정의하고 견딜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신발

이 신발들은 주의깊게 봐야 한다. 바닥에 놓여져 있어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마치 춤 추는 것 처럼도 보인다. 여기의 이 신발들은, 험한 지역들 속에 있었던 자신을 상징하는 이향남 작가의 표현 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작가 자신을 위하여 그 자신 내면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신발들은, 이러한 상황하에 회화적 요소로서, 자화상을 그렸다면 보이지 않았었을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그림의 진짜 주제는 작가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는 신과 같은 것이다. 인식할 수 있으나 잡을 수 없다.

각 작품들이 “나”는 자유와 자율의 존재라고 증명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나는 또한 자신의 부재를 본다. 신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육체로써의 자신의 부재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림 안에서 이 신발들은, 그저 얼음 조각 위에 놓여져 있어 보여도 왠지 상승하기 직전인것 만 같다. 이 신발들은 그들의 도약으로 캔버스 위의 보이지 않는 몸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몸, 그것은 자신의 장소에 도달하려는 물리적 정신적 순간이 정확하게 고려된 육신이 진정한 몸인 것이다.

## 색채와 볼륨

이향남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영적 활동이다. 이것은 그가 “노마디즘”(방랑)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인생을 견인하는 커다란 자극에 속한다. 이 움직임은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광채 속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힘으로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끌었다.

색은 작품에 있어서 필수적 역할을 한다. 커다란 하늘의 파란색, 하늘의 눈물인 비를 뜻하는 회색, 얼음 덩어리를 표시하는 옅은 푸른색, 모든 색 하나 하나가 강력하고도 매혹적인, 아름답고도 위험투성이인 세상의 다양한 환경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신발들에도 색깔들이 있다. 신발들의 색깔들은 물질과 문명의 유물적 인간들의 세상을 표현하는 까닭에 자연의 색채들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몇몇 작품들 속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잘못된 정체성에 만족하며 득실 거리는 인간들의 도시 세계를 표현 하는 많은 수의 신발들이 그려져 있다. 이 신발들 더미 속에도 여행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는 움직임을 말하는 다른 색의 신발이 보인다. 떠나야 한다. 도시를 떠나야하고, 기도에 들어가듯 시간과 위협을 상관하지 말고 노마디즘(방랑)으로 들어가야 한다.

색은 도시세계에서 이미 보이기 시작하는 진정한 “나”를 확인하는 힘이다. 색은 출발의 힘을, 노마디즘과 영혼의 힘을 표현하는 싸인인 것이다.

그녀의 작품들 중 하나는 빙원 위에 신발이 보이고, 지구의 둥글함을 표시하는 멀리서 보이는 희고 옅은 푸른 곡선 바로 위에 태양이 무한한 우주 속으로 다른 곳의 일상이 사라지기 직전의 순간을 포착한 완전하고 신비로우며 눈이나 열매와도 같은 주황의 붉은 점이 보인다.

이 작품만으로도 이향남 작가는 보이는 세상너머 진실의 우물을 찾는 참된 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더 나아가 인간들과 동물들뿐이 아니라, 별들과 하늘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는 숨결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작품에는, 마치 캔버스 위에 그려진 자매와도 같은 신발 한쌍을 만나고 싶어 벽이라도 타고 오를 듯한 진짜 신발 두 짝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오브제들, 이 진짜 신발들은 원한다면 기념물이 되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증언과 도발의 오브제들인 것이다.



마치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작가 자신에게, “이리와 ! 우리를 따라와!”라고 귀속 말을 해주는 듯 하다. 이 신발들은 진실된 “나”의 대변인이며,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스피커들이다. 매일 조금씩 이 작은 숨결에 조금씩 더 가까워 지는 것이 이항남 작가의 목표이다. 그래서, 여행과 노마디즘(방랑)으로 불러내는 그 친밀하고 은밀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항남작가는 또한 3D로 신발을 실현해 보였다.

캔버스에 붙어 있는 이 3D 신발들은 가끔씩 진짜의 신발들 보다는 그 상징이 덜 비슷하다. 이 3D 신발들은 회화 기호를 실제 오브제로 변형 시키고, ‘신발’인 실제 오브제를 조각적 기호로 변형시킨다.

색의 사용은 또 다른 역할을 갖게 된다. 어떤 신발들은 더 분명히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만들어내며 원료의 기본형태로 남아있고 다른 신발은 채색되어 있다. 채색된 신발은 작가를 구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오브제와 상징, 그리고 실제의 요소와 표상적 매체로써 존재한다.

이와 같이 예술적인 실천으로 서로 반대되어 충돌하는 차원들의 호환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항남 작가는 우리 모두를 자신의 영원한 조각을 조금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사명을 지닌 진정한 작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장 루이 뷔와트빙**

**철학박사, 작가, 평론가, AICA 회원**

### **자평**

작품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일상에서의 부조리와 안주하는 삶에 대한 고민들 이다. 이러한 심상을 신발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에서의 신발은 세라믹으로 유니크한 느낌에 큐빅을 박아 밝고 흥미로우며 화려한 느낌이 나게 했다.

지치고 낡은 신발이 아닌 예쁘고 화려한 신발들이 희망찬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캔버스에서 오지의 광활한 풍경이나 문명화 되지 않은 원초적 풍경과 만나는 신발들은 그 곳에서 발로 걷고 걷는 순례자적 체험을 한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 치유과정을 거쳐 일상으로 돌아와선 평안한 새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작은 세라믹의 무수히 많은 신발들을 캔버스에 고정시켜 부착하는 노동을 통해 삶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며 이를 덜어 냄으로서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기도 한다.

어릴 적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에서, 어른이 되어서는 현실의 부조리에서 오는 정신적 갈등을, 무한한 세계에로의 이동이 가능한 신발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럼으로서 우리가 평안한 삶으로 회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